

여름,
낭독시즌

봄
작가,

빛나도록
희곡이
작가와

겨울
무대

낭독공연

8.7. 수 - 8.10. 토 수-금 오후 3시, 7시30분
토 오후 3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봄 작가,

「봄 작가, 겨울 무대」는 매년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작가가 지속해서 희곡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창작 희곡 탄생에 동행하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작가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이른 봄,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을 통해 등단한 신진 작가에게 신작 장막 희곡 집필을 의뢰하고, 뜨거운 여름 낭독공연의 과정을 거쳐 겨울의 문턱, 완성된 무대 공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낭독공연



겨울 무대



더 빛나 희곡 작가 와 이 도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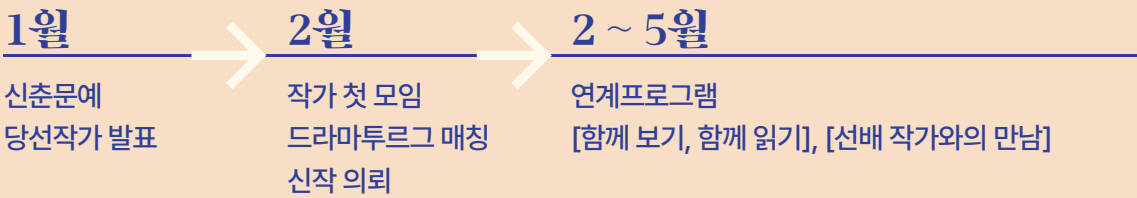
「봄 작가, 겨울 무대」 낭독공연은 신작을 독회 형식으로 선보임으로써 신진 작가들에게 무대화 과정과 관객과의 소통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수정과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사계절 동안 첫 장막 희곡이 무대 공연으로 제작되는 과정을 동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나아가 창작극으로 우리 연극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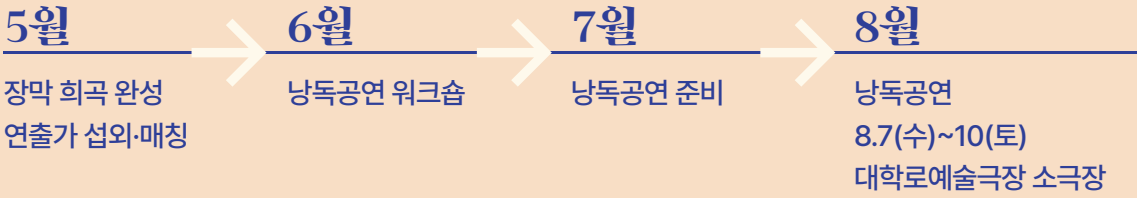
봄 작가, 겨울 무대

사계절의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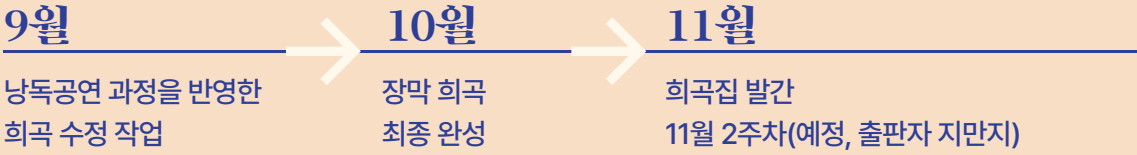
track 1. 사전 운영 : 신작 장막 희곡 집필 과정에 동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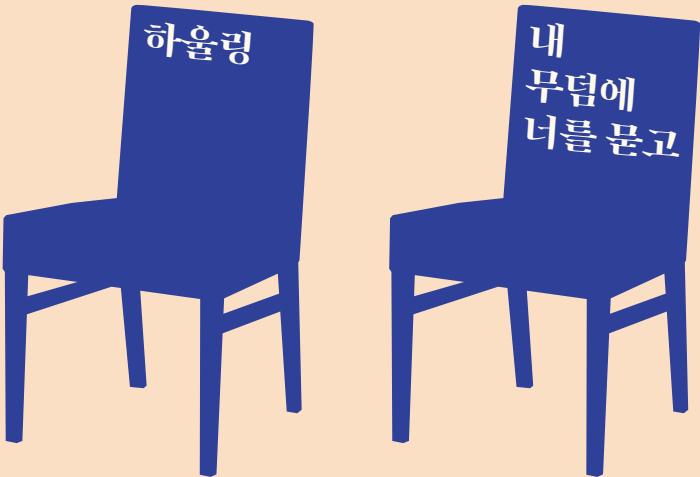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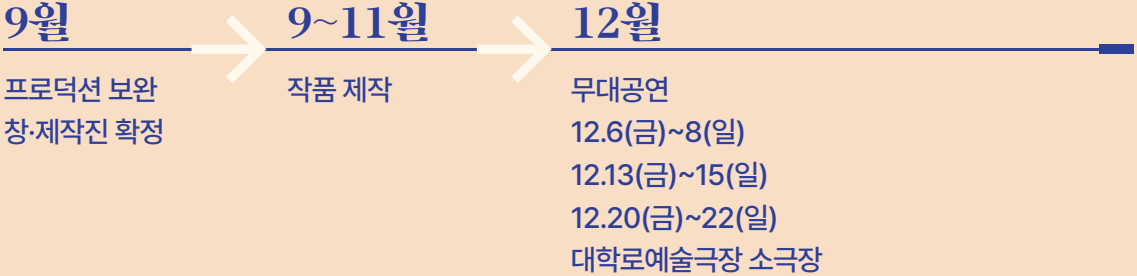
track 2. 낭독공연 : 봄 작가, 겨울 무대 신작 장막 희곡 7편을 선보입니다.



track 3. 희곡집 발간 : 봄 작가, 겨울 무대를 통해 창작된 장막 희곡 7편을 희곡집으로 발간합니다.



track 4. 무대공연 : 봄 작가, 겨울 무대 신작 장막 희곡 3편을 예술극장 기획으로 무대화합니다.



작가와 희곡이 빛나도록

2024 봄 작가, 겨울 무대 낭독공연

8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하울링

작 김유경 | 연출 신재훈 | 극단 작은방 | 드라마투르그 이성곤

오후 7시30분

내 무덤에 너를 묻고

작 윤성민 | 연출 유영봉 | 극단 서울괴담 | 드라마투르그 장지영

8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배타적 창작의 영역

작 강지형 | 연출 김지수 | 극단 애인 | 드라마투르그 고주영

오후 7시30분

랄라라

작 소윤정 | 연출 최용훈 | 극단 작은신화 | 드라마투르그 배선애

8월 9일
금요일

오후 3시
인간주차

작 송천영 | 연출 이원재 | 극단 달팽이주파수 | 드라마투르그 임형진

오후 7시30분

선애에게

작 이정 | 연출 윤혜진 | 윤무아 | 드라마투르그 이홍이

8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장례외전(葬禮外傳)

작 송민아 | 연출 박근형 | 극단 골목길 | 드라마투르그 이경미

※ 낭독공연 종료 후 작가, 연출, 드라마투르그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접근성 안내

- 낭독공연은 한글자막이, 작가와의 만남은 실시간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자막과 문자통역은 무대 중앙에 위치한 모니터를 통해 송출됩니다.

8월 7일(수) 오후 3시

하울링



김유경 작가

재개발 무산된 백마아파트 지하실에는 주민들이 버리고 간 2천 톤의 쓰레기가 쌓여있다. 그곳에서 김복남은 버려진 개들과 함께 살아가며, '쓰레기 할머니'라고 불린다. 어느 날 유튜버가 그녀의 존재를 알리고 개를 흠뻑했다고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이 쏠려 5년간 살던 지하실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데...

STAFF

작 김유경
연출 신재훈 | 극단 작은방
드라마투르그 이성곤
조연출·음향 오퍼 나종건
자막 제작·오퍼 김선아
음악감독 이승호

CAST

김복남	윤진성
채영	문가에
이수	윤일식
용재, 지문	양택호
여백, 메리, 시민2, 해설	박옥출
영신, 허스키, 시민1	김소이
흰둥이, 시민3	배윤범

작가의 글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몰랐던 그때는 낯설고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소 침울한 나날을 지내던 중에 도심에서 폐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개들의 대화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지하실에 할머니가 살고 있고 개들의 수다는 할머니의 일상을 관찰하며 이야기를 안내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그들의 이야기로 시놉시스를 마쳤을 때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서울은 다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일상을 어떻게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픈 기억이었다면 꿈처럼 다가갔으면 합니다.

연출의 글

이야기는 끝났지만, 울음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들개도 울고, 사람도 울고, 무너진 건물도 울고 있는데 왜 그것은 노래가 될까, 생각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닐까. 귀 기울이자, 다짐해 봅시다.

드라마투르그의 글

하울링은 세상 바깥으로 밀려나길 강요당하는 존재들의 절규입니다. 개들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평행이론처럼 펼쳐집니다. 현실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화의 힘에 기대기도 합니다. 환상적 요소를 가미하기도 합니다.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까요? 김유경 작가의 <하울링>이 세상을 대면하고 그려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해설자가 들려주는 김복남의 이야기는 "현재"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모두에게 잊혀진"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완료형이자 현재진행형으로 전개되는 <하울링>. 이 이야기는 아련한 '추억'일까요, 엄연한 '현실'일까요?

하울링

작가
김유경

2024년 경상일보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 <채식상어>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연출
신재훈

극단 작은방에서 연극을 만든다.
<정서진별곡> <시간의 난극> <비극을 찾는 무대> 등을 쓰고 연출했으며,
<견고딕걸> <틴에이지 딕> <금조 이야기> 등을 연출했다.

드라마투르그
이성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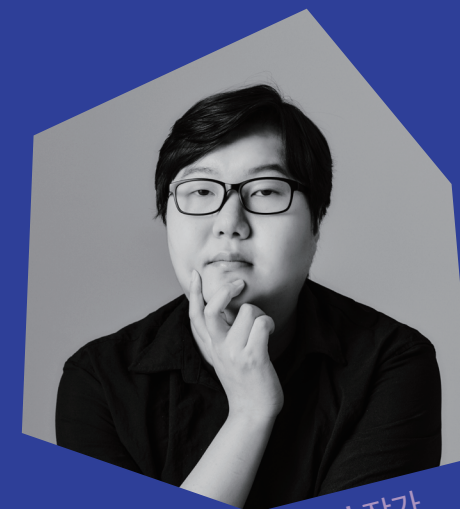
연극평론과 간헐적 드라마투르그로 활동하고 있다.
한일연극교류와 재일코리아 연극에 관심이 있다.
봄 작가, 겨울 무대와 <새들의 무덤>에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했다.

극단 작은방

극장은 세상의 작은방. 무대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근본에 닿고, 웃음은 경계에서 피어나는 꽃
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런 고민이 극단의 미학으로 스며들고 있다.

8월 7일(수) 오후 7시30분

내 무덤에 너를 묻고



윤성민 작가

조선 경종 시대, 김춘택은 왕세제(연잉군, 훗날의 영조)를 왕으로
세우려다 발각되고, 노론의 인물들이 대거 숙청되는 임인옥사가
일어난다. 경종은 왕세제의 목숨을 담보로 능지(陵地) 공사를 명
한다. 왕세제의 친부가 김춘택이라는 소문에 병든 경종은 이복동
생을 처형할지 고민하는데...

STAFF

작 윤성민
연출 유영봉 | 극단 서울괴담
드라마투르그 장지영
PD 이정은
음악감독·음향 오퍼 이진화
자막 제작·오퍼 성다인

CAST

경종	박경주
연잉군(왕세제)	김민지
김춘택	전중용
김현주	김성환
김덕재	공하성
해설자	박지영

작가의 글

무덤이 보이는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보이는 무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무덤은 산 아파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살 수 없게 아파트의 철근을 빼돌리는 사람과 철근 있어도 살 수 없는 아파트를 봤습니다. 조선 왕조의 대가 바뀌치기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왕이 누군지는 백성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소문을 낸 사람들은 지금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무덤에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서,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인 만큼 무덤 속에 집을 지어봤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간다는 말이 생각나서 무덤으로 가져가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다가 물어버려야 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연출의 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경종의 무덤이 있다. 왕릉이 있는 동네에 산다는 것에 대해 특별한 감흥이 없었던 나는, 이 희곡을 받아 들고 무덤 주변을 서성이면서 사는 것에 대한 어수선했음에 대해 생각했다. 극중 인물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무덤으로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이들은 '만났지만 결국은 만나지 못했던 경험'을 되풀이한다. 드라마의 정의가 '생존에 대한 정보'라고 한다면 이 드라마는 비극에 가깝다.

드라마 투르그의 글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면 무엇이 발생할까.
살아남기 위한 욕망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무덤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욕망의 작동을 들여다본다. 눈앞에 무덤이 놓여있다. 그 안에 묻힌 것은 누구일까.

내 무덤에 너를 묻고

작가 윤성민

202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위대한 무사고>
고려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수료

연출 유영봉

<디아스포라 기행> <보이지 않는 도시> <서울탈춤> <여우와 두루미>
<정크타임즈> <기이한 마을버스여행> 등

드라마투르그 장지영

드라마투르그.
<댄스네이션> <비밀의 화원> <청년부에 미친 헤인이> 등 드라마투르그

극단 서울괴담

2010년 창단된 극단 서울괴담은 도시의 터무니없는 현상들을 괴담의 형식으로 재조명하여 현시대에 질문을 던진다. 극장(Theater)뿐 아니라 거리 또는 특정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창작과 공연을 통하여 소외된 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감추어진 이슈에 주목한다.

8월 8일(목) 오후 3시

배타적 창작의 영역



강지형 작가

대선 D-10, 3% 뒤처진 후보의 부 보좌관 '수영'이 새 정책 공약을 준비 중이다. 이때 유명 코미디언의 자살과 외로움에 관한 유서로 전국민적 '외로움 고백 챌린지'가 유행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고독부장관 설립'을 공약으로 내놓기로 하고, 시간에 쫓겨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을 모아 정책을 논의하지만, 의견 차이로 정책을 만드는 것에 제동이 걸리는데...

STAFF

작 강지형
연출 김지수 | 극단 애인
드라마투르그 고주영
조연출 류혜영
사운드 디자인·오퍼 목소
자막 제작·오퍼 강예슬

CAST

유하 김효진
수영 양대은
연서 정유미
봉길 최요한
지문낭독 고주영

작가의 글

19세기 심리학자인 칼 융의 말에 따르면 '외로움'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남들에게 이해시킬 수 없거나, 다른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관점을 유지하는 데서 온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한계를 고려한다면 외로움은 필연적이다. 지금 서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어쩌면 영원히 이해 못 할 영역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인은 영원히 상상의 대상이지 않을까?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마음을 상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란 생각을 하며 이야길 적었다. 끝내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실패하여도, 영원히 가닿을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도, 그럼에도 말이다.

연출의 글

언제부터였을까요? '외롭다'는 말이 '가난하다는' 말만큼이나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대에 '나만 그런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스스로 외면하는 우리의 '외로움'도 충분히 존중받고 보살핌받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수영과 봉길, 유하와 연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해 주신 작가님, 드라마터그님, 조연출님, 배우님들, 스태프들께 감사드립니다.

드라마 투르그의 글

국가의 정책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정하는 행동방침"으로 정의됩니다. 그런데, 지금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호소하는 '문제'인 이 '외로움'이 과연 또 다른 국가정책을 덧대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히려 지금까지의 정책과 그를 통해 형성된(역시나 내가 포함된) '공공'이 원인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외롭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희곡은 아직 정책조차 되지 못한 선거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조차 공공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삶을 쉽게 재단하고 선을 긋고 통쳐버리는 모습은 모두를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뜨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은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를 외로움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정책과 구조이며, 나와는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삶이 느낄 외로움을 기꺼이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타적 창작의 영역

작가
강지형

2024 한국극작가협회 신춘문에 단막극 부분 당선 <독백이라 생각하기 쉽다>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졸업

연출
김지수

연극 <기억이란 사랑보다> <알록달록 한 땀 한 땀> 작·연출
<방에서 나오기만 해> <수시로 바뀌는 동반자> <복작복작 수선리> 작 외

드라마투르그
고주영

공연예술 독립기획자. 현재는 '연극연습 프로젝트'(<1. 연출 연습-세 마리 곰>
<2. 연기 연습-배우는 사람> <3. 극작 연습-물고기로 죽기> <4. 관객 연습-사
람이 하는 일> <5. 번안 연습-로미오와 줄리엣 and more>), 발달장애인 연
극 워크숍(<내 얘기 좀 들어봐1~3> <흐흠! 연극으로 놀아볼까>) 등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연극과 연극 아닌 것, 극장과 극장 아닌 것, 예술과 예술 아닌 것
사이에 있고자 한다.

극단 애인

극단 애인은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작극과 고전을 오가며 '장애'의 고유
한 언어와 신체를 무대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 배우를 위한 연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
다.

<고도를 기다리며> <너는 나다> <극단 애인의 3인 3색 이야기> <제 4의 벽> 외

8월 8일(목) 오후 7시30분

랄라라



소윤정 작가

다세대주택에 이사 온 이수. 다른 방에는 중년 남자 한산, 노년의 순
이, 어린 하루가 각자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이수는 번번이 공모
전에 떨어져 낙담하던 중 드디어 본선에 진출하지만, 표절을 당하
고, 억울함을 알고자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데 오히려 자신을 비
방하는 무자비한 댓글들을 보고 분노에 휩싸인다.

STAFF

작 소윤정
연출 최용훈 | 극단 작은신화
드라마투르그 배선애
조연출 강선미
자막 박지원

CAST

순이	강애심
한산	김문식
이수	이지훈
하루	정재은
지애	정세라
취객·진상손님	김호근
여자 다역	강지수
남자 다역	한정훈

작가의 글

삶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공모전은 계속 실패하고 누군가의 로또는 계속 허탕이고 누군가의 병은 깊어지며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누군가의 밤도 길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웃은 낯설고 경계의 대상이며 불안하고 수상하기까지 합니다. 절망과 분노가 영혼을 휘감을 때 의문투성이 삶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연출의 글

<랄라라>는 노인, 장년, 청년, 그리고 어린이와 가정의 문제까지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사회상을 담으려는 작가의 노력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첫 장막 도전임에도 세대별 캐릭터의 설정, 세대별 문제의식의 제시 그리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보편적인 가치 등에 대한 작가의 묘사와 필력이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낭독을 맞이해 주세요.

드라마 투르그의 글

힘든 세상, 그래도 한 번쯤 “랄라라~~”

<배이비>로 등단한 소윤정 작가의 장점은 여러 인물들을 다양하게 형상화하면서 그 다성(多聲)의 목소리로 주제를 선명하게 하는 데 있다. 장막극 <랄라라>에도 다양한 세대의 인물이 등장한다. 노년의 순이, 중년의 한산, 청년의 이수, 어린 하루. 이 인물들은 출구가 없을 것 같은 답답한 현실에, 바라는 것이 상실됐다고 느끼는 절망의 순간을 맞는다. 그럴 때마다 (비록 우연이어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견뎌낸다.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절로 나오는 콧노래 ‘랄라라~’. 어렵고 힘든 세상,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것의 힘을 믿는 작가의 메시지는 극단 작은신화의 배우들을 통해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다.

랄라라

작가 소윤정

202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배이비’ 당선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연출 최용훈

연출가. 극단 작은신화 대표
전 아르코예술극장 예술감독
동아연극상 연출상 수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드라마투르그 배선애

연극평론가. 드라마투르그.
2024년 <장녀들> <통속소설이 머 어때서?!>
<비와 고양이와 몇 개의 거짓말> <금수우진전> 등
2023 봄작가겨울무대 <계단> 드라마투르그.

극단 작은신화

‘지금,여기,변화하는 자유로움’이라는 극단의 모토가 지향하는 동시대성과 다양한 표현방식을 추구해온 작은신화는 신진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작 발굴과 작가의 성장을 이끄는 ‘우리연극만들기’ 등을 통해 이 시대에 대한 발언을 담은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으며 여러 연출이 작은신화를 플랫폼 삼아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왔다. 현재 우리 연극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희곡 작가들이 ‘우리 연극만들기’를 통해 배출되었으며 많은 연출가들이 독립하여 우리 연극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다.

8월 9일(금) 오후 3시

인간주차



송천영 작가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다. 이들 부자(父子)는 차 안에서 생활의 지혜와 경비원과의 친분으로 무탈하게 생활하며, 주민들에게 소소한 장사까지 한다. 그러나 집주인의 월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동차 앞좌석을 세놓기로 결정한다. 우연히 찾아온 소녀가 앞좌석에 세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STAFF

작 송천영
연출 이원재 | 극단 달팽이주파수
드라마투르그 임형진
음악총괄 박민수 이주한
조연출·음악 오퍼 이은지
자막 오퍼 강지덕

CAST

아들 이기현
아버지 박윤희
소녀 이윤수
소년 채지웅
소년모 최연수
노인 이호성
경비원 이태훈
청년1 방영덕
청년2 전재현
지문 윤영민

작가의 글

몇 년 전 썼던 연극 <산난기>는 철거될 건물에 몰래 숨어든 오갈 데 없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였다. 전기도 수도도 끊긴 반쯤 허물어진 공간에서 인물들은 이런 대화를 나눈다. 소녀는 “이게 집이야? 여기가 무슨 집이야? 여긴 물로 안 나와. 전기도 없고 그릇도 없어.” 그러자 소년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 사람 살고 있으면 그게 집이야.”라고 답변한다. 소녀에게 집이라는 개념은 물질과 자본이 결부된 하우스(house)이고, 소년에게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사람 사는 공간을 뜻하는 홈(home)이다. 주거자본주의 시대. 홈(home)보다 하우스(house)의 가치가 앞선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찾아 헤맨다. 고공행진 중인 집값에 매달리며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 마음마저 가난해지고 있다. 집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지금 진정한 집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연출의 글

인간주차? 머무르는 자와 사는 자. 성경 애긴가. 낭만실조의 시대 다시 찾아온 모던타임즈는 웃픈 세상. 사물은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 보면 희극이라며. 시동 끄면 주차 시동 안 끄면 정차... 켜다 켜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하면 되지. 살아지니까 나아지겠지. 희망을 말합니다.

드라마투르그의 글

공간은 시간의 생성과 함께 사회적 권력으로서 작동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 삶의 ‘주차’를 시도한다. 그 결정은 개인이 욕망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에 따른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은 장소의 이름으로 호명된다. 나의 공간은, 나의 주차장은, 무의식적으로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사회적 계급을 끊임없이 노출한다. 다시 주변을 살핀다. 극장 주차장에서, 무대에서, 객석에서, 주차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

인간주차

작가 송천영

202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벼랑 위의 오리엔테이션>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 선정 <저수지의 인어>
2022년 일번출구연극제 작품상 <애쉬(Ash)-부르짖아요, 김재일씨>
2021년 월드 2인극 페스티벌 희곡상 <경계인>
2021년 대한민국 연극제 네트워크 페스티벌 연출상 <인싸이드(人-cide)>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졸업

연출 이원재

극단 달팽이주파수 대표
연출작 <애쉬(Ash)-부르짖아요, 김재일씨> <얼음땡> <산난기>
<인싸이드(人-cide)> <노민호와 주리애> <고시원> <한 여름밤의 꿈> 외

드라마투르그 임형진

연출가, 평론가.
2008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제5회 젊은비평가상 수상으로 연극평론
을 시작하였으며, 테아터라움 철학하는 몸 대표 및 상임연출, 상명대학교 예술
대학 연극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극단 달팽이주파수

극단 달팽이주파수는 더듬이 길게 뻗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 주파수를 맞춰나간다는 의미에
서 출발했습니다. 달팽이가 흘리는 점액질은 상처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달팽이주파수는 사람
들의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촉촉한 흔적이 남
듯 달팽이주파수의 공연도 여운이라는 흔적이 남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서두르지
않고 달팽이처럼 천천히, 묵묵히 전진하는 극단이 되겠습니다.

8월 9일(금) 오후 7시30분

선애에게



이정 작가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 달아나려고 하면 죄책감으로 짓누르는
그런, 엄마가 쓰러지고, 선애는 모든 보살핌을 도맡게 된다. 퇴원
이 가까워질 무렵 엄마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아빠와 두 동생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만 가족들은 모든 책임을 선애에게 떠넘긴다. 엄
마의 병세가 악화되고, 한계에 다다른 선애는 엄마를 돌볼지, 관계
를 끊을지 고민하게 된다.

STAFF

작 이정
연출 윤혜진 | 윤무아
드라마투르그 이홍이
조연출·자막 배규진

CAST

선애	성수연
엄마·노인	이정미
아버지	장성익
진상	송석근
정애·딸	이경미
해원	박용우

작가의 글

너에게 전하고 싶은 이 이야기가 정작 너에게는 가닿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너는 여유가 없을 테니까. 언제나 바쁘고 빠듯할 테니까. 지금도 지쳐있을 테니까. 너의 가족은 널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물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냥 내 팔자가 그런 것 아니겠냐고, 그런가 보다 해야지 별수 있냐고 바보처럼 천사처럼 넌 웃고 말겠지. 너의 인생이 잘못되어 가는 줄 모르고, 문제가 있다면 너한테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선애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를 싫어해도 괜찮아. 가족과 멀어져도 괜찮아. 너만 생각해도 괜찮아. 원한다면 다 버리고 앞만 보고 가도 괜찮아. 너는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겠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너 자신뿐이라는 것을.

연출의 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함부로 해선 안 된다. 함부로 하지 마라. 당연하지 않다. 당연할 수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

선애에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드라마 투르그의 글

“가족이란, 남이 안 볼 때 내다 버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한 영화감독이 있었다. 애증 섞인 표현이었을까? 불온한 표현이라고 넘겨버리기엔, 가족끼리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드물지만은 않다. <선애에게>에는 유독 한 명의 자녀에게 가혹한 엄마가 등장한다. 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이 딸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이른바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정신의학에서 ‘성격장애’로 분류하는 이런 유형은 대개 이상과 현실의 격차에서 오는 공허, 불안, 분노를 해소해 줄 희생양을 찾는다. 그렇게 만난 엄마와 딸. 이 연극은, 그중에서 딸인 선애를 위해, 그녀의 관점으로 쓰인 이야기다.

선애에게

작가 이정

202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구덩이>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졸업

연출 윤혜진

<공중제b> <곳. 서늘한, 것> <비롯하여 오롯> <어린잎은 나란히>
<유니버설 스튜디오> <돌 깨는 잠, 숨 짓는 숲> <X의 비극> <소네트155>
<잘자라랄라> <나 연극에 별 관심 없어> <궁립공단_무아실업>
<누군가 올 거야> 외

드라마투르그 이흥이

번역가, 드라마투르그
주요 번역 작품으로 뮤지컬 <데스노트> <4월은 너의 거짓말>, 연극 <태양>
<산책하는 침략자> <남자들> <응, 잘 가> 외 다수가 있으며, 연극 <나무 위의 군대> <외지의 세 자매> <서재 결혼 시키기> <언덕의 바리> 등에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했다.

윤무아

윤무아는 윤혜진이다. 윤혜진은 윤무아다.
무릇, 지금, 존재하는, 사라지는, 詩가 되는, 것것것,
어디서, 무엇이, 누구, 든든든,
있는 그대로, 응시한다.

8월 10일(토) 오후 3시

장례외전

(葬禮外傳)



송민아 작가

한 여인의 장례식장에서, 딸은 어머니의 유언장에 기재된 세 명의 친부 후보인 노(老)신부, 노(老)목사, 노(老)스님을 장례식에 부른다. 이들 모두가 성직자로, 각자 자신이 친부가 아님을 주장하며 종교적인 논쟁이 벌어진다. 여인의 유언증서가 공개되며 친부 테스트가 시작된다. 과연 신부님, 목사님, 스님 중 친부는 누구일까?

STAFF

작 송민아
연출 박근형 | 극단 골목길
드라마투르그 이경미
조연출 이도연
음향 오퍼 김승찬
자막 제작 오퍼 이준협
음악감독 박민수

CAST

도소희 고윤희
마익삼 신덕호
하일희 이동혁
오부일 이승훈
나레이션 조 은

작가의 글

외전(外傳) : 본전(本傳)에 빠진 부분을 따로 적은 전기.
우리는 살면서 본전이 아닌 외전으로 빠지곤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 본질은 사라집니다. 상견례에서의 작은 논쟁이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도 하고, 이혼하는 부부도 대부분 본전이 아닌 외전을 가지고 싸웁니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애도, 슬픔, 추모, 위로 그리고 고인의 이야기가 장례식의 본전이라면, 장례 절차, 유산, 빚, 종교 등 살아있는 자들의 비정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갈등은 장례식의 외전이겠지요. 보는 사람에게는 본전보다 외전이 재미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건 잊어버리는... 장례외전의 본전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연출의 글

아버지라는 존재는 항상 차갑지만 나를 뜨겁게 만듭니다. <장례외전>에는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보게 된 풍경이 꼭 진실이 아닐지라도. <묘전-무덤 전쟁>에 이은 송민아 작가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며 희곡이라는 허구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진실된 감정을 마주하길 바랍니다.

드라마 투르그의 글

연극 안에는 작가의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맞은편에는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관객이 앉아 있다. 이들은 자신과 사람들, 세상에 대해 저마다 다른 경험과 감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작가의 이야기는 글을 넘어 극장에서 이런 관객들과 만나면서 여럿으로 갈라진다. 연습 과정 내내 작가와 연출, 배우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설레며 생각했다. 송민아 작가의 이 이야기가 극장에서 어떤 관객을 만나 어떻게 갈라지며 파동들을 만들어낼지를. 그를 위해 우리는 어떤 매개자가 될지를.

장례식장에 모인 목사와 신부, 스님. 고인과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성직자로서 자신의 위엄을 사수하면서, 어느 순간 어이없이 무너지는 이들 셋을 보며 영정 속 여성과 그녀의 30대 중반인 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점잖고 도덕적인 위엄을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어느 순간 이들에게선 쉬지 않고 자기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는 누군가가 보였다. 그리고 결국 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욕망 앞에서 앞드려 소신은 개뿔하며 굶신대는 누군가가 보였다. 올바른 미래로 우리를 안내할 이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이 보였다. 어쨌든. 그건 송민아 작가의 이야기를 만난 우리가 발견한 이야기. 이제 극장 객석에서 만날 관객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로 다시 태어날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작가의 이야기가 담긴 대본을 들고 관객들을 기다리는 중이다.

장례외전(葬禮外傳)

작가
송민아

2024년 강원일보 신춘문에 희곡부문 당선 <묘전: 무덤전쟁>
랑 연기학원 대표 원장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영화예술학과 MFA 과정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졸업

연출
박근형

극단 골목길 작가·연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교수
<청춘예찬>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너무 놀라지 마라> <페스트>
<만주전선> <경숙이, 경숙아버지> <슈퍼마트>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등 작·연출

드라마투르그
이경미

연극학자, 연극평론가
아직까지는 고려대, 한예중, 성균관대 등에서 연극으로 미래세대를 만나고 있다.
전(前) 동아연극상 심사위원장, 두산연강예술상 심사위원
전(前) 국립극단 연출의 판 드라마투르그 및 창작공감 희곡 운영위원
현(現) 광주 ACC 공연자문위원장

극단 골목길

어둑할 무렵 차양을 들추고 들어간 골목길의 어느 선술집처럼 극단 골목길은 극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향수와 잃어버린 정서를 되찾아 주려 합니다. 길 한복판에서의 이유 모를 헛헛함보다는 골목길에서의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골목길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슴 찡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Credit

만든 사람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예술극장장	강량원
극장운영팀장	홍승욱
무대예술팀장	진용남
무대감독	김인성
무대팀	엄지수
조명감독	박헌수
조명팀	윤진선 전준우 김형진 고태욱
음향감독	김종현
자막해설장비	엠투비주얼
고객지원	신지혜
운영지원	성경희
티켓마스터	강서연
하우스매니저	황수희
프로필 촬영	김신중
실황 촬영	R2D2스튜디오 최용석 이명현
홍보물디자인	강지우
홍보물출력	맥24센타
실시간문자통역	평화속기사무소 장정수
프로듀서	이유진 김태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사무처장	송시경
예술극장장	강량원

극장운영팀

팀장	홍승욱
대관	김선옥 임나래 최예솔
기획	이효정_기후프로젝트 이유진_접근성 오선명_다양성 황금실_어린이·청소년 김태임_AD
공연예술창작산실	박성은 임재연 박현정 심정훈 두승희
홍보	이재일
고객지원센터	신지혜
하우스	변고은 이경민 황수희 박유진 김지우
티켓	이주담 김지수 이은혜 강서연
시설	이기복 박성국 박동진 윤지환 유호성 진호택

무대예술팀

팀장	진용남
무대	유창대 이동선 신동환 박민호 김인성 서지훈 김혜지 이동현 원소미 이미현
조명	이주환 곽현주 탁형선 김병구 이명한 박선임 박헌수
음향	도명호 김경남 허선영 김종현 남영모 정하윤
무대기술119 지원센터	신의정 김도형

봄
작가,



겨울
무대